

“이 서방, 내 딸 어릴 적 얘기 읽어 보겠나”

16년간 쓴 딸 육아일기 사위에게 전하는 김성범 곡성 도깨비마을 촌장

1995년 11월 태어난 날부터의 추억 노트 8권에 빼곡히
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기록...“힘들 때 용기 얻었으면”

1995년 11월 21일. 딸 참들이가 태어난 날 아빠 김성범(곡성 도깨비마을 촌장) 동화작가는 일기를 썼다. 마침 이 날은 아내의 생일이기도 했다. 세 살 터울 아들 한결이와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딸의 탄생을 기다리던 아빠의 육아일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어졌다. 오는 19일 참들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아빠는 일기를 하나 하나 읽어보는 중이다. 웃음과 눈물이 담긴 일기장은 이제 사위에게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김작가는 한결이의 육아일기도 썼다. 아들의 일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군 입대 전까지 이어졌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 할 지도 모르니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때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면 어떻까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마도 저의 어린 시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 어떤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랄까요.”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일기장은 8권에 달한다. 김작가는 일기를 쓰고 난 후에는 바로 밀봉해 두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수십년만에 다시 일기장을 들여다 보는 마음은 몽롱하다. 아빠처럼 서서 오줌 누고 싶어하는 이야기, “홍” 하고 코 푸는 방법을 배운 날 시도 때도 없이 코를 풀고 다닌 이야기, 식사 후 먹으라는 말에 책상 서랍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둔 이야기,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보며 함께 울고 시내에 나가 귀를 뚫고 온 이야기 등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마지막 일기에는 기말고사 시험기간 공부하지 않고 오빠와 투닥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참들이가 태어날 때 반응이 굉장히 나서서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죠. 그래서 참들이는 늘 가족들이 마음에 담고 다닌 아이였어요. 다행히 시력이 좋지 않아 반응이



김성범 작가가 쓴 8권의 육아일기.

느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와 소통이 될 때 다들 너무 감사했죠. 이후에는 그저 튼튼하게만 자라 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재 곡성의 숲속에서 경치 좋은 작은 서점 ‘품안의숲’과 게스트하우스 ‘품안의밤’을 운영하고 있는 참들씨는 요즘 아빠가 한장 씩 찍어 보내주는 일기를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중이다.

“얼마 전 방영된 ‘꼭꼭 속았수다’에서 부모 자식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보내 주신 글들을 읽는데 굉장히 웃긴 내용인데도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가족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아빠랑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아동센터 등을 찾아 동요를 부르며 봉사하고, 여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빠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고 엄마가 나가서 놀라고 하면 아빠와 충창로, 흙플러스 가서 구경하고 놀다 오면 일도 생각나고요.”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사위 이정찬씨는 “아버님이 딸을 애지중지 키워주신 기록이 담긴 소중한 일기장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며 “아버님처럼 참들이를 소중히 여기고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성범 곡성도깨비마을 촌장은 딸 참들이가 태어날 때부터 16년간 작성한 육아일기장을 결혼식날 사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함께 공연하고 있는 김성범·찬들 부녀. <김성범 작가 제공>

지난해 결혼한 아들 한결씨의 육아일기장에도 아빠 늙으면 생선 가시를 다 발라주겠다거나, 엄마 아빠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는 계약서, 아이가 그린 그림 등이 담겼다. 김작가는 아들 결혼식 때 ‘덕담’ 형식으로 일기장의 내용을 간추려 발표해 감동과 웃음을 전했다.

“며느리에게 일기장을 주려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의외로 유치원 때부터 아들 녀석 여자 문제가 남달라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웃음). 오빠 결혼식 모습을 본 참들이가 우는 신부가 되기 싫다며 덕담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일기장을 한장 한장 펼쳐 보며 그 때를 떠올리는 데 아쉽습니다.”

세무사인 김작가는 조각가이자, 동화작가, 작곡가, 요돌송 가수다. 입시미술학원에 다니며 조소를 배웠고, 문창과에 진학해 글쓰기를 공부한 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혼자 힘으로 곡성 도깨비마을을 일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화작가인 아빠의 작품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집필중인 ‘마녀 소녀 나체울’과 ‘비밀

로 가득찬 세상’ 등에 참들이 이야기가 등장한다.

“일기를 쓰면서 혹시 우리 애들한테 사춘기가 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고민이 많을 때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담긴 일기를 읽으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큰 어려움과 바뀌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도 생각했구요. 만약 다 행스럽게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전해주자 싶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 힘들어하던 후배가 생각나요. 그 후배가 제가 육아일기를 쓴다는 걸 알았을 때 왜 자신에게도 한 번 써보라고 충고를 해주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알았다면 일기를 써, 아이의 삶을 기록해 줄 수 있었고, 그게 아이한테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요.”

아빠는 SNS에 이렇게 썼다. “읽다 보니 사위 찬아,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았더라. 물리기 없겠다” 마지막에 “시원섭섭하다”고 말했지만, 결혼식장에서 딸의 모습을 본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일지도 모를 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이하 대청협)가 8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들로 구성된 대청협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이재관 회장은 “대청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은 “전달된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새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경영평가 연도대상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하운용)는 최근 ‘2025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해 지난해 우수 실적을 보인 금고를 시상하고, 경영 및 육성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 광주전남지역 수상금고는 ▲경영평가대상 서광주 ▲경영우수부문 최우수상 충무/우수상 산정·순천북부·구봉·담양 ▲혁신경영부문 최우수상 여수서

부/우수상 무진·백수 ▲조직문화부문 우수상 영암 성실 ▲상생발전부문 공로상 강진완도로 총 11개 새마을금고가 수상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포용금융의 힘으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5 FAX 062-222-4918

화촉

▲박주완·이영란씨 장남 철균, 이동명(전 광주일보 사진부장)·김덕자씨 차녀 현지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1동성당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 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6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675-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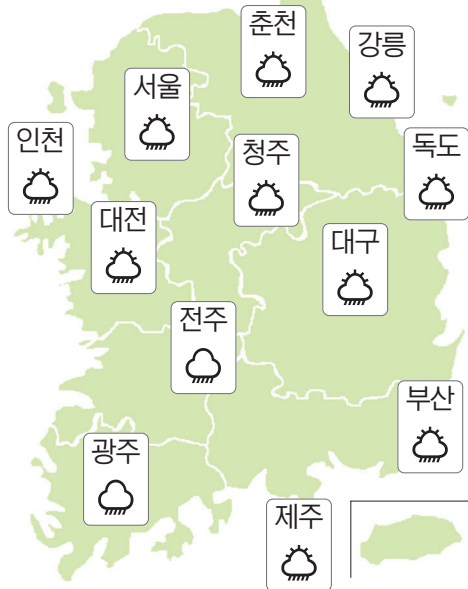
해뜨	06:09	달뜨	15:37
해짐	19:00	달짐	04:21

봄비 내려요

10일까지 5~20mm 비 내리겠다.

광주	하리고비	7/22	보성	하리고비	3/18
목포	하리고비	6/19	순천	하리고비	6/19
여수	하리고비	10/16	영광	하리고비	4/21
나주	하리고비	3/22	진도	하리고비	5/18
완도	하리고비	7/19	전주	하리고비	6/21
구례	하리고비	4/21	군산	하리고비	4/19
강진	하리고비	4/20	남원	하리고비	3/20
해남	하리고비	3/20	흑산도	하리고비	8/17
장성	하리고비	3/2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5
	면바다(남)	0.5~1.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5
	면바다(동)	0.5~1.0	0.5~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10	12:28
	17:48	-:-
여수	00:57	07:25
	13:33	19:42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20	9/23	11/19
13(일)	14(월)	15(화)
6/14	7/16	7/1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320-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